
 금융위원회	보도반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24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행정인사과장 선 욱(02-2100-2750)		담 당 자	서 나 윤 인사팀장 (02-2100-2751)	

제 목 :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검토·심사하는  
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.  
(조선비즈 3.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## 1. 기사내용

- 조선비즈는 3.24일자 「금융위, 금감원장 징계 남발 제동… 징계 수위 검토 조직 신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정한 제재(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)가 적절한지를 검토, 심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한다. … 금융위는 팀 구성 인력과 출범 시기를 조율 중이다.”라고 보도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
- 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검토·심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 prfsc@korea.kr


 1339  
 불법관리청 콜센터

## 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